

LG하우시스, 합성수지 50% 합성목재 개발

LG하우시스(대표 한명호)는 고강도 합성목재인 <우젠 네이처>를 출시한다고 5월31일 발표했다.



<우젠 네이처>는 분말 형태의 목분과 합성수지를 절반씩 사용한 기존 합성목재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고강도 합성목재로 섬유형태의 천연목재 칩이 70% 이상 사용돼 강도와 지지 하중이 2배 이상 향상됐다.

또 기존 합성목재보다 열과 수분에 강하고 장기내구성이 뛰어나며 실제 나무와 같은 입체감과 색감이 구현됐다.

LG하우시스 한명호 대표는 “합성목재 가공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 공원, 산책로 등 조경공간 뿐만 아니라 건축물 마감재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히는 한편

미국, 유럽,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2/05/31>